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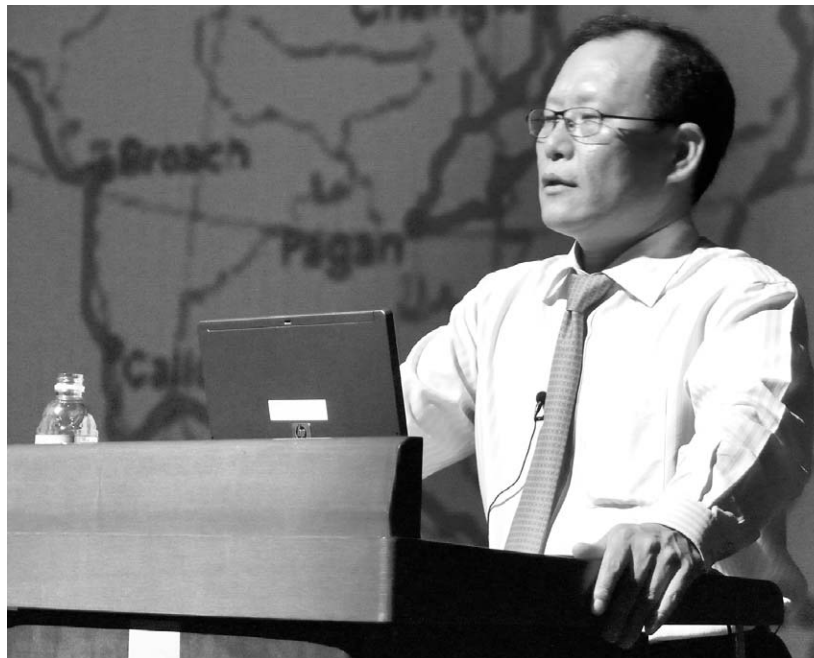
강사 : 조성택 (고려대학교 철학과·불교철학)
주최 : 한국학술진흥재단
일시 : 2008년 8월 16일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경쟁하는 두 붓다

한국불교, 대륙과 호흡·세계 속으로...

불교의 역사적 이해④ <끝>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시리즈' 아홉번째 강연을 맡은 조성택 교수(고려대)는 기존 불교학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전통 내의 두 구원의 존재, 즉 미륵과 아미타불과 관련된 신앙이 인도에서 어떻게 시작·형성됐고, 이러한 신앙이 중국과 한국의 지역문화에 어떻게 수용됐는지를 개관한다.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이라는 각 문화권의 독특한 특징들을 파악하고 두 구원 신앙을 통해 한국불교의 위치를 재조명한다.



불교구원의 두 존재, 미륵과 아미타불
각 문화권의 미륵과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형태를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는 불교 교리 내에서 이 구원의 존재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륵불과 아미타불은 많은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미륵은 불교가 상정하고 있는 삼계(욕계·색계·무색계)중 욕계 육천의 하나인 도솔천(兜率天)에 살면서 지상에 붓다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보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신성한 실체가 특정한 시기에 이 땅에 나타나는 유사-역사적인 존재(quasi-historical)입니다.

불교도들은 보통 미륵이 먼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혁명과 관련된 경우 미륵의 '하생'은 임박한 것으로 믿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혁명 지도자들은 종종 자신이 미륵의 현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아미타불은 정토(淨土, Sukhāvati), 즉 불국토에 머무르고 있는 부처가 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는 신성함이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넘어선 차원에서 실현되는 초역사적 존재입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아미타불과 미륵
우선 미륵과 도솔천을 살펴보면 대승과 소승을 통틀어 미륵신앙보다 복합적이고 불분명한 기원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래의 붓다로서 미륵을 인정하고 있는 다양한 문헌자료들은 너무나 단편적인데, 보통 상호 모순적이어서 불교 사 내에서 '미륵'의 개념과 미륵신앙의 발전모습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승과 상좌부의 자료들이 미륵신앙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 내 미륵신앙이 생겨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며 미륵신앙은 그의 거처가 도솔천으로 결정된 이후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미륵신앙이 후대에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등지에서 누렸던 인기와 비교하여 인도에서 더디게 발달한 이유는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도 불교도에게 도솔천은 이상적인 재생 장소가 아니었다. 도솔천은 불교 우주관에서 가장 낮은 영역인 욕계에 속해 있으며, 미래의 부처는 인간세계와 가깝다

는 이유로 그곳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석가모니 붓다가 활동하던 시기와 비교적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던 인도 불교도들에게는 미륵은 매력적이지 않았다.

셋째는 미륵과 관련된 신앙은 그 당시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법과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는 붓다의 유훈에서와 같이 미륵신앙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륵은 인도와 동남 아시아에서 후대가 되어야 인기를 누릴 수 있었고, 오히려 '본고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특히 인도와 이란의 접경지대에서 수많은 미륵상을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에서 미륵신앙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아미타불신앙은 인도 거의 모든 대승 전통의 출가자들에게도 타당한 종교적 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에 입각해 우리는 인도 대승불교의 정토 개념 그리고 인도불교의 구원론적 지향점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인도에서 아미타불은 신앙대상으로 발전하지 않았고 정토는 그곳에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오직 정토는 아미타불, 도솔천은 미륵과 연관돼 있다는 중국불교 전통과 상반된다.

둘째, 출가중심 전통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경시했지만, 정토는 승려들에게도 합리적인 목표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는 멸법에 대한 관념과 관련 있을 수도 있다.

셋째, 아미타불신앙과 미륵신앙이 경쟁 관계였다는 증거는 없다.

중국에서의 두 부처
불교가 처음 중국에 소개됐을 때, 당시 중국북방을 점령하고 있던 유목민족과 남쪽의 한족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방유목민족은 불교에 우호적이었습니다. 특히 북방유목민들의 왕은 불교가 자신이 원하는 관심사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교의 업설은 한족에 의해 무시당하던 유목민의 '선출제 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륵과 전륜성왕 개념은 당시 그들의 중국북방 침입과 정복을 정당화

해 줄 수 있었습니다. 유목민의 왕들은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미륵신앙과 함께 한국과 같은 다른 지역으로까지 전파했습니다.

반면 한족은 불교가 유교적 사회질서에 기반을 둔 자신들의 고유한 풍속과 달랐기 때문에 불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출가전통과 금욕수행은 가족의 혈연적 유대와 그들의 조상숭배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족의 중국은 북방유목민의 침입으로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혼란기인 남북조시대에서야 불교가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남북조시대가 막을 내린 수나라 통일 초기 미륵과 아미타불신앙은 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남조에서 각광받았던 미륵신앙이 쇠퇴하고 아미타불신앙이 선호 받게 됩니다.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통일정권에서 이땅에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 미륵불은 정권불안정을 초래했고, 둘째는 통일된 이후 다시 찾게 될 옛 땅에서 아미타불 신앙이 조상제사 등 유교전통과 사후영생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 미륵신앙과 아미타불신앙은 정권과 민족적 차이로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 자리잡습니다.

한국불교, 미륵과 아미타의 통합-노힐부득과 달달박박

한국불교는 이런 중국불교문화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혀 아닙니다. 한국에는 북방유목민족의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처음부터 미륵신앙이 강조됐음을 의미합니다. 북방유목민족의 왕들이 미륵신앙이 갖는 정치적 효과에 끌렸던 것처럼 한반도의 왕조들 또한 새로운 종교로 나라를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특히 신라 화랑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땅에 온 미륵이 있고 바로 여기가 불국토라고 믿었습니다.

중국에서 미륵신앙이 가라앉고 아미타불신앙이 떠오를 때,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미타불신앙이 대부분 자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미륵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때서야 중국 아미타불

신앙에 영향을 받아 미륵신앙과 아미타불 신앙이 혼재해 자리잡게 됩니다. 이는 삼국유사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설화에 잘 나타납니다. 노힐부득(미륵불)과 달달박박(아미타불)이 부처가 된 자리에 신라사람들은 절을 짓게 되고 미륵불과 아미타불을 함께 모시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불교에서는 미륵신앙과 아미타불신앙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공존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미륵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까닭은 천상에 대한 토착적인 믿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한국의 건국신화는 천제 혹은 하늘의 아들인 환웅이라는 존재가 하늘로부터 강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화의 골격이 재입할 부처인 미륵불과 유사하게 융합됨으로써 한국의 불교인들은 한반도가 과거 '불국토'였으며 미래불인 미륵의 '불국토'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의 종교적 감수성을 형성해온 '하늘'에 대한 깊은 믿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한국불교를 중국불교와 구별시키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문화 발달에 영향을 미친 외래 요소들을 고려할 때 중국기원에 비해 비중국적이거나 종교 평가절하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는 15세기 이후 한국역사상 중대한 역할을 해온 강력한 유교전통의 잔재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기원을 중시하는 편견은 불교학 연구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비중국적인 문화요소가 한국 불교에 있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의 한국유입은 중국의 북방유목민족과 한반도 사이의 문화교류의 일환이었습니다. 한국화와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학계가 오로지 중국자료에 기초하고 있는 문헌적 전통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러한 비중국계문화와의 연관성에 보다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의 틀에 매여있는 한국은 중국이 세계와 차단되면 자동적으로 세계에서 고립된 섬이 됐습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대륙과 호흡하는 한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국불교를 중국적 틀에 싸여있는 동아시아의 문화권에서 벗어나 세계 문화권속에서 재조명해야 합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불교문화원 범음·범패, 불화, 단청 신입생 모집 ◆

제방의 사암에서 수행정진과 전법도상에 여념이 없으신 출가 수행승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의 법체청안 하우기를 촉구하오니 합니다.

급변 본 불교문화원에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50호인 영산재 의식과 48호인 불화, 단청 부문의 강화를 개설하여 뜻있는 스님들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을 모실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범음범패과》 1년 과정 (4학기제)

- 초급반 : 시물, 도량식, 조석예불및 종성, 각종불공
- 중급반 : 시련, 대령, 관옥, 신중작법,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식

※ 공통 소 리 : 종성, 가불, 복청계, 천수태정타법, 도량계, 현좌계, 가영, 향수니일 바 라 : 요장, 천수바라, 사다라니, 화의재바라 나비춤 : 도량계, 다계

- 개강일시 : 2008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매주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수업)
- 수업료 : 입학금 10만원, 매학기(3개월) 30만원
- 특 전 : (1)매년 1~2차례 봉원사 영산재 보유자 초청특강, (2)장학생 수업료 면제, (3)수료후 각종 행사 지원알선
- 강 사 : 준범스님(봉원사 옥천범음대 출신)

《불화, 단청과》

- 초 급 반 : 불교기초이론, 시양초 등선구기, 덧생실기, 문양그리기, 채색법
- 중 급 반 : 시양, 여래, 보살, 사천왕 그리기 완성
- 고 급 반 : 각종 소품 및 탱화제작
- 연 구 반 : 단청문양, 불상개공, 달마도연구

- 개강일시 : 연중 수시모집
- 수업료 : 입학금 5만원, 매월 5만원
- 특 전 : 심심돈독한 성적우수자는 전문가로 양성.
- 강 사 : 영범스님(30년 경력의 불화작가)
- 다음카페 : '불화교실' 운영

한국불교태고종대구교구 종무원 부설 불교문화원
문의처 053)622-3702 / H·P 011-814-0648

학 인 모 집

영남 법패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7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안
내

- ◆ 입교일시 : 2008년 8월 28일(목요일) 오후 3시
- ◆ 교육기관 : 6개월 과정
- ◆ 교육내용 : 일반불공의식 및 재의식
- 1. 각종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 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 수강자격 : 식발염의 한 출가 승려에 한 함
- ◆ 수 강 료 : 월 10만원(교재비 별도)
- ◆ 수 강 일 :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사가 406호 (서진주 I.C에서 5분거리)
-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법패불음원을 쳐보세요.
- ◆ 문의전화 : 055)747-8419 / 011-867-8419(원장 원명스님)

영 남 범 패 불 음 원